KB금융그룹 | 국민의 평생 금융파트너

KB금융의 기후금융 전략 방향

2021. 06. 16.

KB금융지주 ESG전략부

KB금융지주

Ⅰ.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

- 기후변화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국가적 차원의 노력 및 국제 협력 강화
- '탄소중립'은 새로운 국제 질서이자 인류의 생존을 위한 핵심 Agenda로 전 산업계에 걸쳐 확대

탄소중립

- ➢ 탄소를 배출한 만큼 감축활동을 통해 실질적인 배출량을 '0'으로 만드는 것
- ➢ 탄소중립화, 탄소제로(carbon zero), 순 배출 영점화(net-zero) 모두 같은 의미로 쓰임

주요국 탄소중립 목표

- 2030년까지 2005년 대비 50~52% 감축
- 2050년까지 탄소중립

- 2030년까지 1990년 대비 55% 감축
- 2050년까지 탄소중립

- 2030년까지 탄소피크 및 2060년까지 탄소중립
- 2021년부터 탄소배출권 거래제 정식 시행

- 2030년까지 2017년 대비 24.4% 감소 목표
  → 목표 상향 조정 및 발표 예정('21.11)
- 2050년까지 탄소중립

- 2030년까지 2013년 대비 46% 감소
- 2050년까지 탄소중립

산업계 탄소중립 목표

➢ 포브스2000 기업 중 21%가 2050 탄소중립 목표 발표 (연 매출액 14조 달러 규모)**

2030: Microsoft, Apple, pwc, novo nordisk

2050: bp, Ford, British Airways, Nestlé

LG
- 2030년까지 탄소중립 (해외법인)
- 생산 단계 배출량을 2017년 대비 50% 감축

posco
- 2050년까지 탄소중립

SK
- SK그룹 (14개 계열사 포함) SBTi 기반 탄소중립 목표 발표 예정

* 탄소피크 : 연간 온실가스 총배출량이 최고치에 도달한 후 점진적으로 감소하는 것

** Energy&Climate Intelligence Unit(2021), A global assessment of net zero targets

Ⅰ.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

- 금융권 탄소중립을 위한 글로벌 이니셔티브 활성화 및 금융기관별 탄소중립 선언 확대
- 금융기관의 탄소중립은 내부 및 자산 포트폴리오 배출량을 모두 포함한 탄소제로화를 의미

금융권 탄소중립 이니셔티브 활성화

Net Zero Banking Alliance(탄소중립은행연합)

- 2050년까지 대출 및 투자 포트폴리오의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한 은행 연합체
- Bank of America, BNP Paribas, KB 등 43개 금융기관 참여
- 자산 포트폴리오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2050년까지 탄소중립으로 만들고, 5년마다 감축목표 재검토 및 달성 현황 공시

Net Zero Asset Owner Alliance(탄소중립 자산소유자 연합)

- 국제 기관투자자들이 자신들의 투자 포트폴리오를 1.5℃ 시나리오에 맞춰 2050년까지 탄소중립화 하기 위한 글로벌 이니셔티브
- Allianz, Axa, Folksam 등 전세계 37개 금융기관이 참여(자산운용규모 약 6,400조원)

BANK OF AMERICA

Bloomberg

Business

Bank of America Announces Actions to Achieve Net Zero Greenhouse Gas Emissions before 2050

- 2050년까지 포트폴리오 탄소중립 목표
- 2023년까지 포트폴리오 배출량 공개 선언
- 2030년까지 저탄소, 지속가능 사업에 약 490조원 (US $445 billion) 투자

BARCLAYS

ESG ENVIRONMENT

Barclays sets 2050 'net zero' carbon goal after investor pressure

By Simon Jessop, Iain Withers

4 MIN READ

- 2050년까지 포트폴리오 탄소중립 목표
- Scope1,2 탄소중립 기 달성
- 2030년까지 녹색금융에 약 110조원 이상 (US $100 billion) 투자

Ⅰ.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

◆ 정부는 2050탄소중립위원회(위원장 윤순진) 설립 및 탄소중립 전략을 발표

"탄소중립이 가능해?' 아니라 '어떻게'를 물어야 할 때"

이종규 기자 +구독

이종규 논설위원의 직격인터뷰 | 윤순진 탄소중립위원장

탄소중립은 누구도 가보지 않은 길...문명사적 대전환 필요
위원회는 부처간 협업·사회적 대화 위한 컨트롤타워 역할
반드시 변화 이뤄야 한다는 비장한 심정으로 위원장 맡아

온실가스 감축, '목표 수치' 설정보다 '국민 동의'가 중요
피해 보는 지역이나 사람들과 함께 가야 '정의로운 전환'
위원회 제 역할 하려면 '탄소중립이행기본법' 빨리 제정을

윤순진 탄소중립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새문안로 사무실에서 <한겨레>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김명진

McKinsey Global Institute (2013) Financial globalization: Retreat or reset?

Ⅱ. 기후변화가 금융에 미치는 영향

◆ 거시경제적 관점에서 기후변화는 수요와 공급 모두에 영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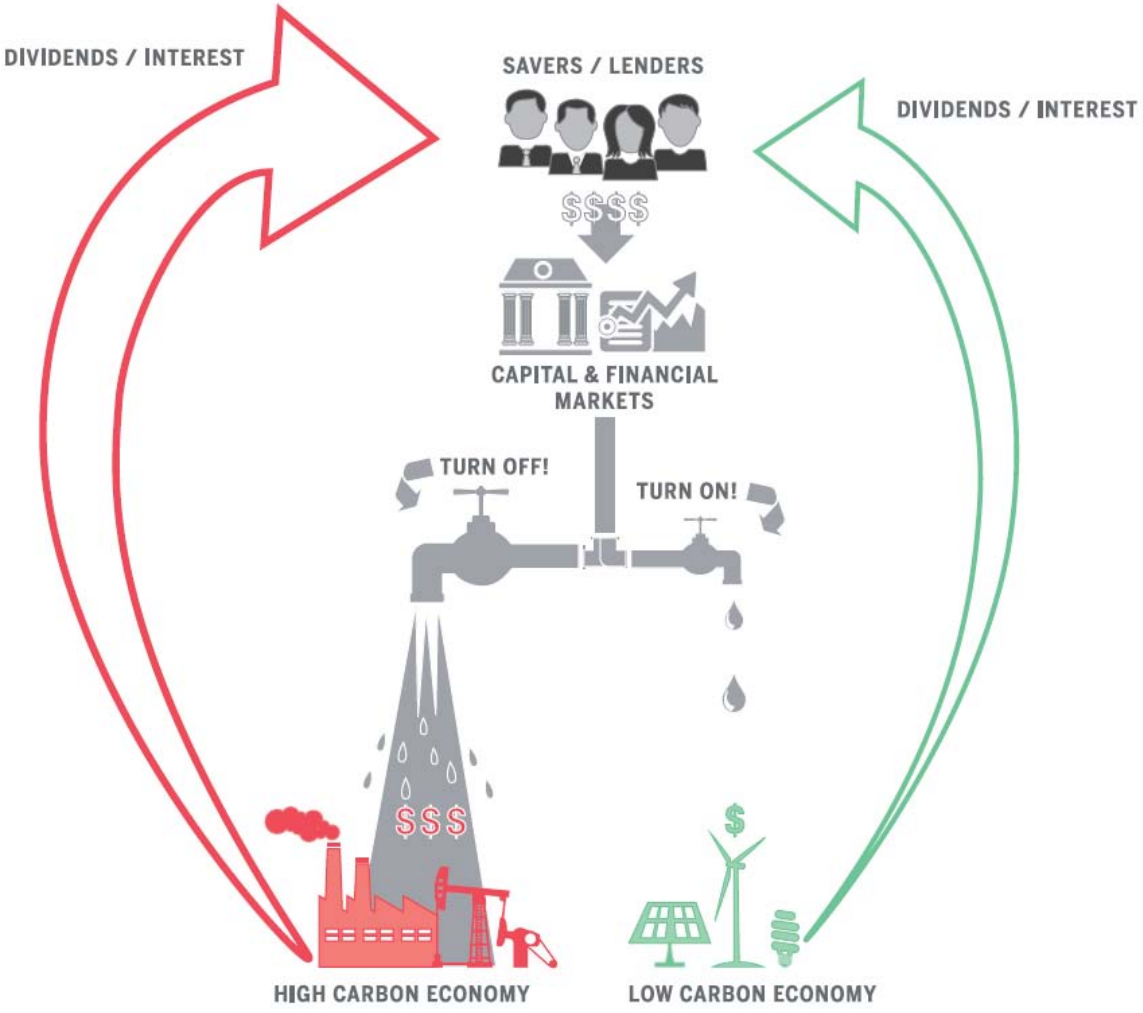
· 수요 측면 : 기후변화로 인한 이상기후 증가는 투자와 민간 소비 모두 위축 시킬 수 있음.

· 공급 측면 : 노동시간과 생산성 저하, 에너지•식량 등과 같은 원자재 부족 및 가격상승, 자본과 기술 투자 방향 전환 등

영향/충격 유형		물리적 리스크		전환리스크
		단기적 이상기후	장기적 기후변화	
수요	투자	기상기후에 대한 불확실성		기후정책으로 인한 크라우딩 아웃효과
	소비	주택자산에 대한 침수 위험 증가		기후정책으로 인한 크라우딩 아웃효과
	무역	수•출입 과정 지연/방해		불균형한 기후정책으로 인한 왜곡
공급	노동공급	자연재해로 인한 노동시간 감소		
	에너지 식량 기타 투입물	식량 및 기타 투입물 부족	폭염으로 인한 노동시간 감소	에너지 공급관련 위험
	자본	이상기후 현상으로 인한 피해	자원의 투입방향 변경(생산 관련 투자에서 적응을 위한 투자)	자원의 투입방향 변경(생산 관련 투자에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투자)
	기술	자원의 투입방향 변경(혁신에서 재건축 및 대체)	자원의 투입방향 변경(혁신에서 적응)	청정에너지 기술의 혁신 및 도입속도에 대한 불확실성

출처 : Bank of England, 2018, climate change and the macro economy a critical review

◆ 탄소중립 이행을 위해 자금의 흐름을 통해 산업의 지도를 바꿀 수 있는 금융의 역할이 중요



McKinsey Global Institute (2013) Financial globalization: Retreat or reset?

Ⅱ. 기후변화가 금융에 미치는 영향

- **물리적 리스크 :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의 발생은 자산에 물적 피해 야기**
- **이행 리스크 : 저탄소 사회로의 이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정책, 기술 및 소비자의 성향 변화 등으로 발생하는 리스크**

제 2018-6호 THE BANK OF KOREA

BOK 이슈노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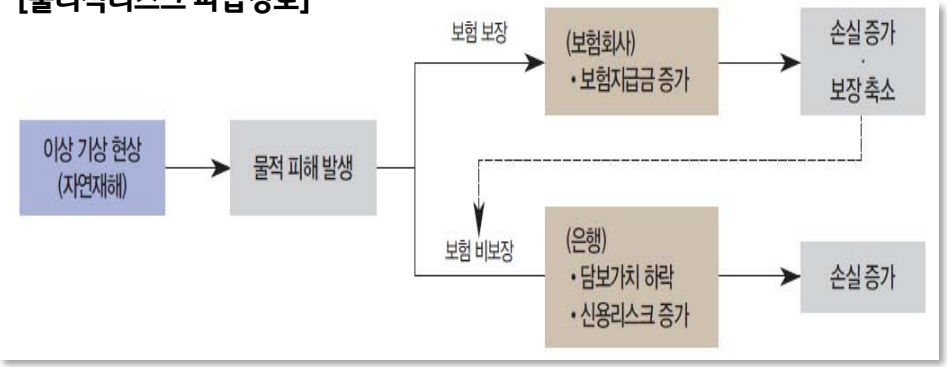
기후변화와 금융안정

2018년 6월 28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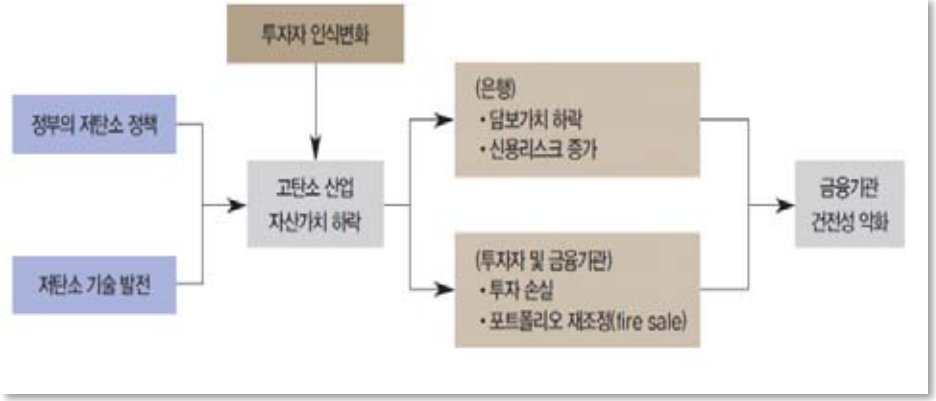
한국은행

Bank of Korea 이슈노트_기후변화와 금융안정(2018)

[물리적리스크 파급경로]



[이행리스크 파급경로]



III. 금융의 탄소배출량 및 목표 설정 방법

◆ 금융업의 기후변화 대응은 측정·목표설정·공시·평가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야 함

금융기관의 기후변화 대응 방법론*

방법론	측정	목표 설정	공시	평가	
주요 이니셔티브	PCAF Partnership for Carbon Accounting Financials	SBTi Science Based Target initiative	TCFD Taskforce on Climate-related Financial Disclosures	CDP Carbon Disclosure Project	DJSI Dow Jones Sustainability Indices
현황	• 금융 자산의 **탄소 배출량 측정 방법론** • 공식 방법론 '20.11월 출시	• 금융 자산의 1.5~2℃ 시나리오 기반 **감축목표 설정 방법론** • 공식 방법론 '20.10월 출시('21.4월 개정)	• 기후변화 관련 기업의 영향 **공시 방법론** • '18년 권고안 발표 이후 지속 대응 중	• 기후변화 포함 기업의 **환경 추진 사항 평가** • 3년 연속 리더십 A-	• 환경·사회적 측면 포함 **지속가능성 평가** • 5년 연속 World지수 편입
KB	가입 ('21.4월)	가입 ('21.4월)	가입 ('18.10월)	가입 ('18.10월)	편입 ('16~'20년)

* 출처 : PCAF, The Global Carbon Accounting Standard for the Financial Industry('20.8)

III. 금융의 탄소배출량 및 목표 설정 방법

◆ 탄소배출량은 글로벌 에너지 산정 기준에 따라 그룹 내부(Scope 1&2)와 자산(Scope 3)으로 구분

탄소배출량 산정 범위

Greenhouse Gas Protocol

온실가스 배출 유형은 Greenhouse Gas Protocol (GHG Protocol)*의 'Corporate Accounting and Reporting Standard' 정의를 준용

GHG Protocol은 온실가스의 직접 및 간접 배출원을 설명하고, 다양한 유형 및 조직의 온실가스 배출 회계 및 보고 그리고 기후 정책 및 비즈니스 목표에 대한 효용성을 제공하기 위해 온실가스 배출량 유형을 Scope 1,2,3 세 가지 유형으로 정의함

	배출량 유형	내용	예시
내부	Scope 1	기업이 직접 소유·통제하는 배출원에서 발생하는 **직접적인** 온실가스 배출	기업 소유 차량의 연소
내부	Scope 2	전력사용으로 인한 **간접적인** 온실가스 배출로 **기업이 소비하는 구매 전력**으로 인해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	사무실 전기/열 사용
자산	Scope 3	기업의 활동에서 기인하지만 타기업이 소유하거나 통제하는 배출원에서 발생하는 **간접적** 온실가스 배출 → 자본재, 출장, 폐기물 등 15개 카테고리로 구성되어 있으며 금융기관은 **'투자 및 대출****'이 해당	투자 및 대출

* GHG Protocol : 세계자원연구소(WRI)와 세계지속가능발전 기업협의회(WBCSD)에서 개발한 글로벌 온실가스 회계 표준으로서 기업 및 정부가 탄소 배출량을 측정하고 관리하기 위한 표준, 도구 및 교육을 제공

** 투자 및 대출 : 금융기관은 투자기업의 가치(Value of Company) 대비 미상환액(Outstanding amount) 비율에 따라 투자기업의 배출량 중 해당 몫을 산정

IV. KB금융 기후변화 대응 전략

KB GREEN WAY 2030 목표 달성 및 기후변화 대응 체계 수립을 통한 글로벌 Green Leadership 확보

1 기후변화 대응 리스크관리체계 구축

- 기후변화에 따른 리스크관리체계 정립
- 기후변화 재무적 영향 분석 및 관리 프로세스 정착

2 기후변화·뉴딜 관련 상품·제도 확대

- 2030년까지 ESG 투자·상품·대출 50조원 달성
- 기후변화·뉴딜 대응 Biz별 상품 확대
- 이해관계자 참여형 ESG 제도·인프라 확충

3 탄소배출 중립(Net Zero) 기반 마련

- 2050년 탄소배출 중립(Net-Zero)을 위한 내부 탄소 배출량 목표 재수립 및 감축 추진
- 탄소배출 감축을 위한 주요 사업 확대
- KB Green Wave 활동 고도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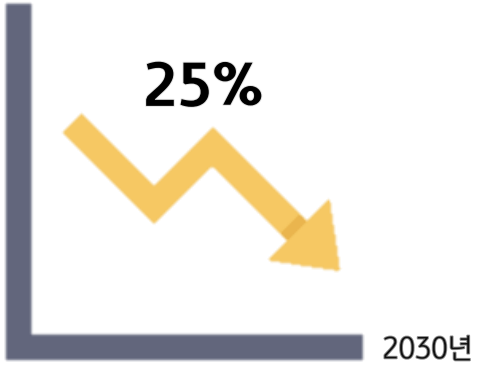
※ KB GREEN WAY 2030 목표

KB GREEN WAY 2030

탄소배출량 25% 감축
ESG 상품·투자·대출 50조원 달성

Ⅳ. KB금융 기후변화 대응 전략

◆ 저탄소 경제 전환을 위한 구체적인 목표 수립 및 전략 과제 추진



탄소배출량 감축
('17년 대비)

1 여의도 KB 통합사옥
2 김포 통합 IT센터
3 KB손해보험 사천연수원 태양광 시설

친환경 설비 도입 및 신재생에너지 사용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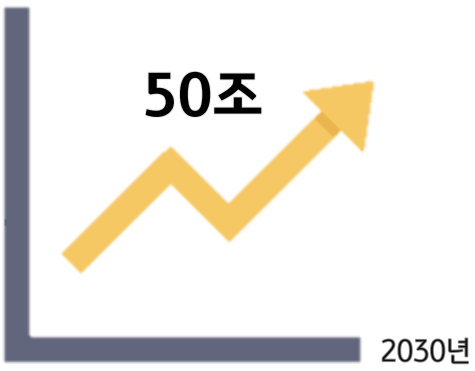
- ✓ 친환경 통합 사옥, 그린 IT센터 구축
- ✓ 태양광 발전 시설 및 연료전지 설비 도입

必환경 캠페인 「KB Green Wave」 추진

- ✓ Less Paper·Save Energy·No Plastic 3대 테마 중심 캠페인 실시
- ✓ 고객, 사회, 임직원이 함께 참여하여 사회적 변화를 확산

Ⅳ. KB금융 기후변화 대응 전략

◆ 친환경 분야 산업 및 인프라 중심 녹색투자 지속 확대



ESG 금융상품 확대

1 영암 태양광 발전소
2 인천 연료전지 발전소
3 해남 솔라시도 태양광 발전소

그린 뉴딜 등 정부정책 관련 핵심 Biz 강화

- ✓ 신재생에너지, 녹색산업 등 친환경 투자·대출 25조원 확대 추진
- ✓ 환경 분야 딜 (금융주선, 펀드결성, 자문 등) 등 친환경 사업 시장 선도

ESG 채권 발행주관 등 ESG 금융시장 저변 확대

- ✓ 그린본드·소셜본드·지속가능채권 발행 확대를 통한 시장 선도
- ✓ 친환경 사업투자를 위한 ESG채권 발행 주관 등 시장 주도
  - KB증권 ’18 ~ ’19년 국내 ESG채권 발행 금액의 49% 주관

IV. KB금융 기후변화 대응 전략

◆ 글로벌 이니셔티브 참여를 통한 기후환경 변화에 대한 책임 이행

Global Initiative Milestone

2018년 8월	2018년 10월	2018년 11월	2019년 9월
UNEP FI 가입 CDP 가입	TCFD 지지기관 가입	책임은행원칙 지지기관 가입	 책임은행원칙 서명기관 가입 기후공동협약 가입 EU Taxonomy Working Group 참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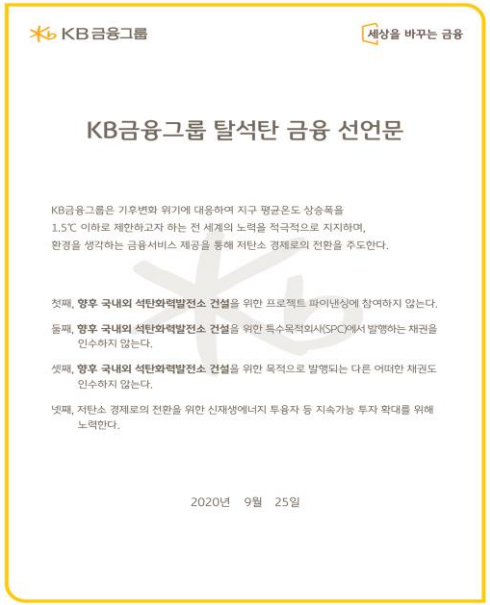
'21년도 신규 가입 이니셔티브

- ✓ SBTi (과학적 기반 감축목표 이니셔티브) ➤ 그룹 탄소배출량 감축 목표에 대한 과학적 근거 마련 및 달성도 모니터링 강화
- ✓ PCAF (탄소회계금융협회) ➤ 그룹 탄소배출량 감축 목표에 대한 검증 강화 및 탄소배출량 측정 방법 고도화
- ✓ NZBA(넷 제로 은행연합) ➤ 친환경 기술 보유 기업 금융지원 확대를 통한 온실가스 감축 촉구

V. KB금융 기후변화 대응 사례

◆ 기후변화 위기 대응을 위한 그룹 차원의 '탈석탄 금융 선언'('20. 9월)

- ✓ 향후 국내외 석탄화력발전소 건설을 위한 프로젝트 파이낸싱에 참여하지 않는다
- ✓ 향후 국내외 석탄화력발전소 건설을 위한 특수목적회사(SPC)에서 발행하는 채권을 인수하지 않는다
- ✓ 향후 국내외 석탄화력발전소 건설을 위한 목적으로 발행되는 다른 어떠한 채권도 인수하지 않는다
- ✓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투융자 등 지속가능 투자 확대를 위해 노력한다



KB금융그룹 세상을 바꾸는 금융

KB금융그룹 탈석탄 금융 선언문

KB금융그룹은 기후변화 위기에 대응하여 지구 평균온도 상승폭을 1.5℃ 이하로 제한하고자 하는 전 세계의 노력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며, 환경을 생각하는 금융서비스 제공을 통해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을 주도한다.

첫째, **향후 국내외 석탄화력발전소 건설**을 위한 프로젝트 파이낸싱에 참여하지 않는다.

둘째, **향후 국내외 석탄화력발전소 건설**을 위한 특수목적회사(SPC)에서 발행하는 채권을 인수하지 않는다.

셋째, **향후 국내외 석탄화력발전소 건설**을 위한 목적으로 발행되는 다른 어떠한 채권도 인수하지 않는다.

넷째,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투융자 등 지속가능 투자 확대를 위해 노력한다.

2020년 9월 25일

V. KB금융 기후변화 대응 사례

◆ 미세먼지·해양오염 등의 환경 문제 대비 친환경 상품 개발

KB맑은하늘 금융상품

- 깨끗한 하늘을 위한
  「KB맑은하늘 금융상품(적금/공익신탁)」 출시('19년)
- 친환경 실천 시 우대금리 제공 및 신탁보수 기부
  (종이통장 미발행, 대중교통미션 등)

➤ 미세먼지 저감 도시숲 조성, 복지시설 친환경보일러 교체

KB맑은바다 금융상품

- 깨끗한 바다를 위한
  「KB맑은바다 금융상품(적금/공익신탁)」 출시('20년)
- 친환경 실천 시 우대금리 제공 및 신탁보수 기부
  (해양쓰레기 줄이기 실천, 종이통장 미발행 등)

➤ 해양쓰레기 클린업 활동, 제주도 양식장 정화 활동

V. KB금융 기후변화 대응 사례

◆ 신재생 에너지 및 친환경 선박 자동차 등에 대한 친환경 투자 확대

○ SOC 분야를 중심으로 '한국판 뉴딜 사업' 추진을 위해 10조원 지원 예정

친환경 투자 활동

✓ **영암태양광 발전사업**

- 당행 약정금액 : 730억원
- 태양광발전소 및 에너지저장시스템(ESS) 구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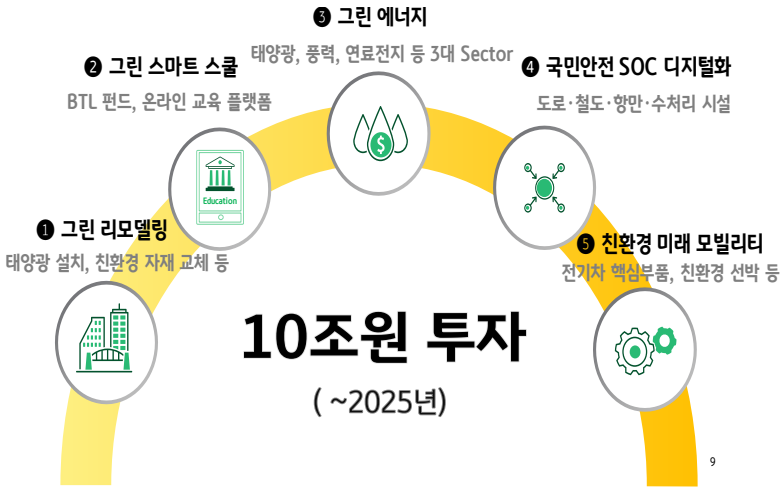
✓ **솔라시도태양광 발전사업**

- 당행 약정금액 : 1,040억원
- 국내 최대규모 태양광 발전소

한국판 뉴딜 사업 대응

✓ ESG 관련도가 높은 '그린뉴딜' 중심 사업방향 설정

✓ 정부 10대과제 중 민간 투자 규모가 큰 사업을 중심으로 주력 Sector 선정



V. KB금융 기후변화 대응 사례

◆ 친환경 및 사회적 책임에 대한 투자자 및 시장의 관심 증대에 발맞춰 ESG채권 발행 시장을 선도

○ KB증권은 2019년 비금융 일반기업 최초로 발행된 3,000억원 규모의 한국수력원자력 소셜본드를 주관하는 등 ESG 채권 발행 시장을 선도

ESG 채권 발행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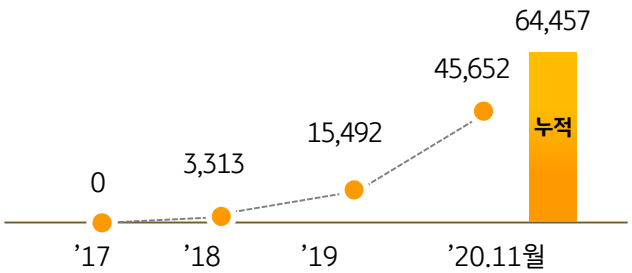
8.35조 원

총 발행 금액(2018년~2021년 5월 말)

Sustainability Bond	Social Bond	Green Bond
7.13조 원[1]	8천억 원	4.2천억 원

ESG 채권 발행 확대

[단위: 억원]



※ 원화 환산금액으로 11월말 기준 매매기준율 적용

ESG 경영 및 관련 활동 이행을 위한 자금 조달

❶ 친환경 사업 및 사회문제 해결

❷ 코로나 19 대응 금융지원

❸ 소상공인 신용판매대금 조기 지급

❹ 친환경 자동차 금융 서비스 지원

TELL ME

SHOW ME

INVOLVE ME